농어촌공 순창지사, 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임현석)는 8일 순창군 동산저수지 일원에서 '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행사'를 실시했다.

'내고향 물살리기' 행사는 환경정화행사를 통한 지역민과 소통을 통해 수질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용수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환경보존 의식 고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직원, 순창군 환경수도과 직원 및 동산마을 주민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수지 둘레길 및 제방의 버려진 쓰레기 등을 걸으면서 줍는 '환경정화 행사'와 지속가능한 수질개선 여건을 만들기 위한 '낚시 금지구역 지정(지정일2023.03.01.)에 따른 오염원 합동 감시활동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이날 임현석 지사장은 "농민과 소통하는 환경정화행사를 통한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을 선제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상시적 계도 및 감시활동을 실시하겠다."며 "수질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이웃돕기 유공자 21명에 감사패 전달

남원시는 9일, 시청에서 이웃 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공자 21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기간에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기부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대상은 개인 4명, 기관·단체 8개소, 기업 9개소 등 총 21명으로,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기부해 주신 개인 2명과 단체 및 업체 6곳이 있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취약 가정에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대표관광지 마이산 모바일스탬프투어 실시

진안군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지정된 마이산도립공원과 주요 명소 홍보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진행한다.

스탬프투어 장소는 마이산 도립공원 내 금당사, 부부사비, 마이산 석탑군 및 탑사, 은수사, 산약초타운, 명인명품관, 가위박물관, 진안역사박물관, 미로공원과 관내 명소인 꽃잔디동산, 수선루, 부귀메타세쿼이아길, 섬바위, 용담호 조각공원, 운일암반일암 등 30여 개소이다.

참여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앱 설치 및 로그인 후 진안군 스탬프투어를 선택한 후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장소의 스탬프존으로 접근하여 스탬프를 인증하면 된다.

관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5개, 10개, 20개, 30개 이상 미션 달성 시 매월 20명을 추첨하여 기념품을 차등 증정하며 상품은 우편발송 예정이다.

한재길 관광과장은 "모바일 스탬프투어 참여자들이 진안의 숨겨진 장소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해바라기 봉사단, 은혜를 입은 천사의 집 봉사활동

해바라기 봉사단은 사회복지시설 '은혜를 입은 천사의 집'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가졌다.

고정자 효자4동 해바라기 봉사단 회장은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해바라기 봉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후백제문화권 발전 위해 하나 될 것"

장수군-전주시, 고향사랑기부 상호 기부

후백제 역사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장수군과 전주시가 공동사업의 발굴·협력 의지를 다지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에 상호 동참했다.

최훈식 장수군수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9일 장수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전달하면서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 사업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양 단체장의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전달은 후백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함께 고민하자는 의지가 담겼다.

또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상됐다.

이와 관련, 장수군과 전주시를 비롯한 5개(완주군·진안군·논산시·문경시·상주시) 시·군은 후백제 흥망성쇠와 관련된 '후백제역사문화권'에 포함돼 있다.

특히 양 시군은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후백제 역사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로 천년 역사가 흐르는 문화도시로서 기틀을 공유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후백제 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하나 될 것을 다짐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서로 응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지역 간 상생 발전에 든든한 보탬이 되며,

장수군민과 전주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소외돼 온 후백제의 역사가 빛날 수 있도록 장수군을 비롯한 7개 도시의 협력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기부를 통해 기부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김제 금산면 금암마을, 찾아가는 한글교실 '마을소학교' 열어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서효연),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세)은 지난 8일 2023년 리본농촌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한글교실 '마을소학교'를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소학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농촌지역 복지사각지대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주 1회 한글교실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고령 어르신의 일상생활 도움, 치매예방은 물론 평생학습을 실천하고자 만들어진 금산면 행정복지센터와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밀착사업의 일환이다.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는 작년 하반기 '찾아가는 청춘복지관' 소용마을 문해교육을 진행한 경험을 살려 2호 마을을 발굴하게 되었다.

서효연 금산면장은 '마을소학교는 농촌지역 고령노인의 문해력과 주민참여를 높이고 사람중심으로 움비하는 김제

시의 작은 실천모델이 될 것이다라며, 민관협력의 파트너로 이번 사업을 계획한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과 금암마을 주민분들께도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월성동·검산동, '우수 치매 안심마을' 지정

김제시 치매 안심마을 월성동, 검산동이 2023년 '우수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됐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돌봄 부담경감을 위한 치매 친화적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제시는 지난 2019년 월성동을 1호 안심마을로 선정하여 2020년 검산동 내 검산주공1차 아파트를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해 △물리적 환경 및 인식개선, 운영위원회 구성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 선별검사, 치매 예방교실, 인지강화 교실 운영으로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 △실종 예방 환경구축, 치매환자 가족교육, 사례관리와 자원연계를 통한 안전한 환경조성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치매 안심마을 기능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안심마을의 질 관리를 위해 1년 이상 운영한 치매 안심마을을 평가해 '우수 치매 안심마을'을 선

정하는데, 월성동, 검산동 모두 지정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정명자 김제시치매안심센터장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도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치매 환자 및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는 9일 장수소방서(구천동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에 대비하여 공원 내 낙석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국립공원 드론을 활용하여, △낙석위험 암반의 균열 발생 여부 △낙석위험지역의 표층 유실 및 침식 여부 △암반 사면의 갈라진 틈을 확장시키는 수목의 존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낙석주의 안내판 설치, 낙석 제거 작업 등 개선·보완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낙석위험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군산시 공직자, 튀르키예 성금 2800여만원 전달

군산시 공직자들이 튀르키예·시리아 국경지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돕고자 성금 2,800여만원을 모금해 전달했다.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군산시청 전 직원들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7일간 성금을 모금했다.

9일 모금된 2,834만5,000원을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강 시장을 비롯한 유병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송철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진호 군산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지사장 오부환)는 지난 8일 익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고향사랑 마음을 전달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스마트 국토정보로 안전하고 포용적인 국가 구현에 기여하는 지적측량, 공간정보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오부환 지사장은"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정보의 혁신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지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하고 싶은 마음에 임직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헌율 시장은"시 발전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에 감사의 말씀 전한다." 며"기부금은 주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지역의 특산품 등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기부액은 고향 사랑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 복리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금마면, 어르신 염색지원 특화사업 실시

금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일 원촌, 옥두말 경로당 등 2곳을 방문해 '청춘을 물들이다' 염색 지원사업을 본격화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흰머리를 염색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특화사업이다.

올해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2~4곳 경로당을 방문해 염색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영등동 뷰티명가 미용학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와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염색과 커트, 기초건강측정, 치매인지 선별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젊음을 선사한다.

이날 머리 염색을 마친 한 어르신은"미용실에 가기 힘들었는데 마을 경로당에 직접 와서 예쁘게 커트랑 염색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예쁘게 머리를 하니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탁덕남 금마면장은"어르신들에게 염색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협력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금마면 행정복지센터는 착한가게, 착한가정, 1인 1계좌 등을 통한 CMS 정기기부와 일시지정기탁 등으로 적립된 기부금으로 염색지원, 밑반찬 지원 등 특화사업을 시행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덕진경찰, 여성의 날 젠터폭력 근절 캠페인 실시

세계 여성의날(3월 8일) 맞아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전북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여성의 생존권'을 의미하는 '빵'과 '참정권'을 뜻하는 '장미'를 나눠주며, 젠더폭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총학생회와 함께 홍보를 높였다.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젠더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공동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